

엄마는 多문화 메신저

강사로... 연극 배우로... '문화에 빠진 이주여성들'

낯선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꾸리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흠뻑 빠져들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문화 교육을 받는 데서 벗어나 직접 문화 강사로 나서는 등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성취감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이주 여성들은 자신의 나라 문화를 직접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엄마 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자긍심을 갖게 된 데 보람을 느낀다. 또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알려주는 '문화 메신저'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함평 잠원미술관, '클레이 놀이터 만지작 책방' 시민문화회의, 각국 문화 소개 체험 프로그램 극단 '연인' 이주여성들 참여 '맹진사댁...' 무대

함평 잠원미술관은 8월 한달간 다문화 가정과 한국 가정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참여하는 행사로 클레이 아트를 이용, 동화책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 강의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출신 엄마들이 특별 강사로 참여했다. 이야기 강사로 참여한 엄마들은 각 나라의 전래 동화를 들려주고, 아이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클레이 아트로 동화책을 만들었다.

동화책은 엄마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 단행본으로 출간, 전국의 다문화 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동화책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성과물은 오는 10월 잠원미술관

에서 열리는 '산내리에서 시작 그리고 희망'전을 통해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된다.

(사)시민문화회의는 2008 이주민지역생활문화축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던 '우리 안에 다(多)있다' 결과 보고회를 오는 23~24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갖는다.

'우리 안에 다(多)있다'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각국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강사로 변신한 점이다. 강사로 참여한 이들은 직접 계획안을 짜고, 교육자료 등을 준비하는 등 열성적으로 참가했다.

지난 5월 첫 모임 이후 3개월간의 교육에 참여한 가정은 모두 10가정, 조세린(필리핀), 김관(중국), 돌고르마(몽

골), 안나(러시아)씨 등 외국인 가족 5팀과 한국인 가족 5팀이 참여해 각 나라의 문화를 배우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돌고르마씨는 몽골의 전통 발성법으로 부르는 '호미' 배우기 등을 진행했고, 안나씨는 러시아의 전통 인형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보고전에서는 지금까지의 교육 과정과 체험 결과물들을 전시하며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개별 코너들도 운영한다. 특히 23일에는 러시아 전통 모자 만들기, 일본 주먹밥 만들기, 중국 조형물 만들기 등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사)시민문화회의의 박효정씨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자신의 엄마 나라에 대해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더불어 일반 가족들도 타국의 문화를 접해보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여성들이 참여하는 연극 작품도 선보인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지난 4월부터 광주여성발전센터와 함께 이주여성들이 참여하는 연극교실을 운영중인 극단 '연인'은 오는 11월에 연극 작품 '맹진사댁 경사'를 무대에 올린다.

연극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 일본 출신 이주 여성 20여명은 극단 대표 김중필 씨의 지도로 발성 연습, 신체 훈련 등 기초 과정을 마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60대 작가 40년만의 늦깎이 개인전

이정자씨 9월1일~8일 상계 갤러리...24년간 그린 30여점 선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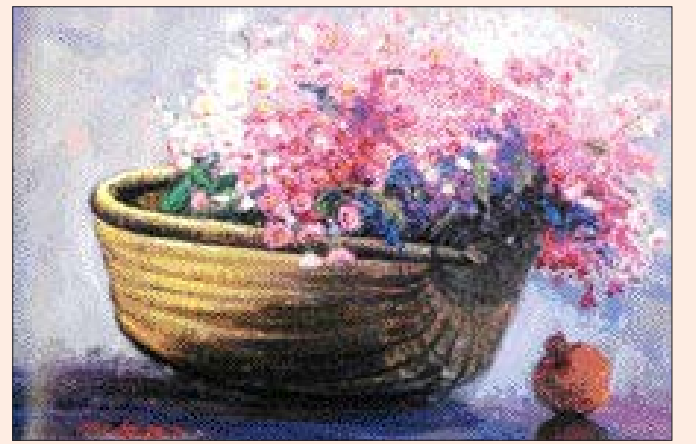
예수를 훌쩍 넘긴 나이에 첫 개인전을 여는 늦깎이 작가(?)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오는 9월1~8일까지 광주 상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 이정자(65)씨. 결혼과 동시에 붓을 놓았던 이씨는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화가에의 꿈'을 40여년 만에 이뤘다.

이씨가 처음 그림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64년 수도권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학교) 미술과에 입학하면서부터. 이후 한국미술제 특선, 예술대전 작가상 등 크고 작은 상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냈지만 결혼과 육아 등의 이유로 잠시 작품활동을 접었다.

하지만 예술에 대한 갈증은 이씨를 캔버스 앞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지난 1984년부터 영광 백수해안도로, 소록도, 섬진강, 선암사 등지를 돌며 부드러운 색채의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씨는 그동안 주변 작가들의 권유로 모던 파워 그룹전, 구상작가초대전, 히로시마 평화미술제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면서 꾸준히 개인전을 준비했다.

이번 개인전에서 이씨는 지난 24년 동안 정성껏 그린 농익은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이씨가 표현한 풍경은 나무, 산, 하늘이 서로 뭉뚱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색감의 조화를 통해 마치 하나로 융화된 듯한 따뜻한 느낌을 선사한다. 또 '만남' '구룡포' '고목' 등의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묵은



이정자 작 '환'

장맛처럼 중후한 맛과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호남대학교 미술학과 노의웅 교수는 "이씨의 작품은 시각적 화려함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표현한다"면서 "거친 표면 질감은 강인한 인상을 주면서 고향의 흙을 연상시킨다"고 평가했다. 문의 062-233-948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中 고선박 추정 '진도 통나무배'는 일본 배"

해양유물전시관 "14세기 말 출몰한 왜구 배에 가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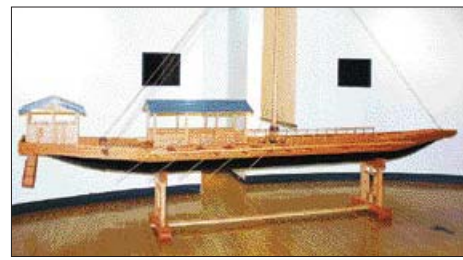
지난 1992년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수중 옛 배에서 발굴된 이른바 '진도 통나무배'가 일본 배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이 배는 중국 푸젠성 연안 일대 선박에서 흔히 보이는 '보수공'(保壽孔)이라는 동전을 넣는 구멍이 있어 중국 고선박으로 추정돼왔다.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관장 성나준·유물전시관)은 20일 "길이 19m, 너비 2.34m인 이 배는 12~14세기 일본 가마쿠라(鎌倉) 시대 문헌, 일본에서 발견된 5척의 통나무배 발굴자료 등과 비교할 때 일본산에 가깝다"고 밝혔다.

고려 충정왕 2년(1350)에 왜구가 진도에 침입해 관민이 육지로 피난을 갔다는 기록이 있는 등 당시 진도 지역에는 왜구의 출몰이 빈번했다. 유물전시관은 이 배의 정확한 성격을 밝히기 위해 오는 11월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물전시관 관계자는 "진도 벽파리는 고려 시대의 유명 포구로 많은 국내의 배가 드나들었을 것"이라면서 "나아가 13세기 후반 여몽연합군의 일본원정군과 관련지어 이 선박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물전시관은 이 통나무 배와 서해 중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전시중인 진도 통나무배 모형. (해양유물전시관 제공)

선망어선 모형을 완성하고 지난 18일 공개했다. 서해 중선망어선은 조기잡이를 하던 전통한선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1호인 김귀성 씨가 제작을 맡았다. /오광록기자 kroh@

'탐라-전라'전 남도향토음식박물관 24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24일까지 광주와 제주지역 작가 27명의 작품을 모은 '탐라-전라'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고순철, 김성찬, 박성배, 양영식, 오승익, 이순현씨 등 제주작가와 김기범, 김숙민, 안태영, 장용림, 정선희씨 등 광주작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화선이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지형인 '꽃자왈' 등을 소재로 지구 온난화로 시름을 앓고 있는 생태 문제를 다룬 작품을 출품했다. 또 과거 유배지였던 제주와 남도의 슬픈 역사를 표현한 작품들도 눈에 띈다. 이들 작가들은 지난해 제주도에서 합동 전시를 여는 등 양 지역 젊은 작가들의 예술 교류를 위해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다. 문의 062-510-156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창훈 작 '별을 위한 노래'

'영호남 친구들 합창여행'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23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인 '한여름밤 영호남 친구들과 합창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갖는다. 23일 오후 5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등 4곡으로 구성된 박지훈 곡 '반딧불 미사'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빅 시티 스윙' 등 역동적 안무가 돋보이는 곡들을 들려준다. 또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울산 현대 어린이합창단이 특별출연해 멋진 화음을 선사한다. 문의 062-510-93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시민문화회의가 진행한 다문화 가정 문화프로그램 '우리 안에 다(多) 있다'에 강사로 참여한 러시아인 안나 씨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민문화회의 제공)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립단역극사거리 ☎02-544-0600

1관	다크나이트 (15세)	최고급관
2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3관	놈놈놈(15세)/눈에는눈이에는이 (15세)	
4관	스마트 피플 (12세)	
5관	CJ7-장강7호 (전세)	
6관	다찌마와 리 (12세)	
7관	미드나잇 미트트레인 (18세)	
8관	슈퍼히어로 (12세)	
9관	아기ওয়া나 (12세)	

영화 학벌 이수하면 결혼과 혜택이 쏟아진다! (1-2008.08.31)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2시간 30분 초고속 영상요금 부과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CJ7-장강7호 (전세)	
2관	당신이 잠든 사이에 (15세)	
3관	다크나이트 (15세)	
4관	월드(전세)/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5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6관	다찌마와 리 (12세)	
7관	님은먼곳에 (15세)/미이라3 (12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극내 육의 주차장 300대 * 금도 심이상영
* 여름방학특선-매일심야상영(8월1일~8월10일까지) *

황토사랑 영화사랑 *예매: www.joyce.co.kr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림(상무병원과 아파트 사이) 해남점 (무역역앞뒷편)

1관	장강7호(전세)/다찌마와 리 (12세)	
2관	님은먼곳에(15세)/당신이 잠든사이에(15세)	
3관	아기ওয়া나 (12세)/엑스 파일(15세)	
4관	다크나이트 (15세)	
5관	월드-지막(전세)/미드나잇 미트트레인(18세)	
6관	월드-더방(전세)/눈에는눈이에는이 (15세)	
7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8관	슈퍼히어로 (12세)	
9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10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	

* 최신 최다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성남영문 빌딩 4층(전-전)
콜롬버스 하남점 (10개관) **잡채리 상영중**

색깔있는 영화선박 *www.cinua.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다찌마와 리 (12세)	
2관	미드나잇 미트트레인 (18세)	
3관	CJ7-장강7호 (전세)	
4관	슈퍼히어로(12세)/눈에는눈이에는이(15세)	
5관	아기ওয়া나 (12세)/엑스 파일(15세)	
6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7관	다크나이트 (15세)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북 서무니(오전5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고려시청 고래극장 *www.hamcinema.co.kr/ 1588-9120

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미포박스 ☎ 267-7777

1관	월드-지막(전세)/엑스 파일 (15세)	
2관	아기ওয়া나 (12세)/미이라3 (12세)	
3관	눈에는눈이에는이 (15세)	
4관	다찌마와 리 (12세)	
5관	CJ7-장강7호 (전세)	
6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7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8관	다크나이트 (15세)	
9관	미드나잇 미트트레인 (18세)	
10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385 매일 심야
*이동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하미 수영장 289-5757 *하미 북점 262-0825
*하미 골프장 251-5080 *하미 닭구장

새로운 기쁨 *www.primusicinema.com/www.jedcinema.co.kr *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860

1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2관	미드나잇 미트트레인 (18세)	
3관	CJ7-장강7호 (전세)	
4관	다크나이트 (15세)	
5관	놈놈놈 (15세)/미이라3 (12세)	
6관	다찌마와 리 (12세)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서우소일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